중장기 인구정책 수립, 지방소멸 선제 대응 나섰다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 정립
돌봄강화 등 보육환경 구축

순천시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정립, 돌봄 강화 등 출산·보육 환경 조성으로 지방소멸 선제 대응에 나섰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초저출산 지속, 고령화 사회, 수도권의 인구 집중 등 사라져가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중장기적 인구정책을 수립해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순천시는 지난 10여 년간 꾸준한 인구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저출산, 청년세대 수도권 유출 등 사회 구조의 변화로 2021년 이후 인구가 감소했다.

시는 중장기적 인구 정책으로 △새로운 인구개념 도입 △출산·보육환경 조성 인구유입 지원 △청년정착 광역화 정책 등을 추진한다. 주민등록인구를 보완해 생활의 질 관점으로 인구를 유입하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제도화한다.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제정해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생활인구 개념 및 지원방안 등을 담는다.

한달살기 체험, 농산어촌 유학사업 등 순천시가 보유한 생태도시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관광·방문객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발굴해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출산·보육환경 조성에는 결혼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결혼부터 출산, 양육까지 생애주기별 시책을 지원한다.

△결혼축하금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어린이집 특성화비 지원 △아동수당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정착을 위해서는 주요 정책으로는 신성장·디지털, 기후에너지 관련 25개 사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결혼축하금, 청년 취업자 주거비, 주택 구입·전세 대출이자 지원 등 생활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렸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인구구조 변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해로, 주거·보육·교육·의료돌봄 등 중장기적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완성해 지방소멸을 넘어 기회와 미래로 나아가는 선도도시 순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NH농협은행 '순천만 예금' 출시
순천만정원박람회 성공 기원

NH농협은행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한 상품을 출시했다.

NH농협은행 전남본부(본부장 정재헌)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정원실에서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이사장(순천시장 노관규)에게 '도시가 정원이 되는 순천만 예금'1호 상품 가입 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가 정원이 되는 순천만 예금'은 가입자들에게 1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12개월 만기 지급식 금리와 0.1% 우대금리를 제공하며 농협은행은 예금 평균잔액의 0.1%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전달한다.

이번 행사는 공식후원 은행인 NH농협은행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을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농협은행 정재헌 전남본부장, 조상명 농협순천시지부장 등이 참석해 박람회 성공개최에 대한 염원을 기원했다.

정재헌 전남본부장은 "'순천만 예금'의 출시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홍보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닭구이 밀키트' 제작 지원
순천시, 순천대표음식 추진

순천시는 순천의 대표음식인 닭구이의 브랜드화를 위해 '순천대표음식(닭구이) 밀키트 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찾은 체류형 관광객(캠핑족)이 순천대표음식을 간편히 즐기도록 하고 다양한 판매경로를 확보해 순천시 외식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는 닭구이 밀키트 제작비 50%를 지원하며 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포장지 등을 제작하도록 지원해 순천대표음식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신청은 11일까지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순천시 농식품유통과 미식개발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식품영업허가증(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이 있는 닭구이 판매 음식점으로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2~3개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 대표 먹거리에 맞은 제작 지원으로 우수한 먹거리를 홍보하고 순천의 대표음식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 낙안읍성 대보름 행사 구경 오세요" 순천시 낙안읍성이 오는 5일 '순천 낙안읍성 정월대보름 행사'를 열고 추모제와 당산제, 성곽돌기,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잡월드 노사 분쟁 타결… 6일부터 정상운영

해고자 3명 포함 35명 복직
순천시 "원상회복 노력할 것"

순천만잡월드 노사 분쟁이 겨울철 천막농성 등 악화됐으나 1일 타결됐다.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만잡월드 민간위탁사와 노동자, 순천시, 민주노총 공공연대가 순천YMCA에서 협상 후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순천만잡월드는 6일부터 35명의 복직과 함께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협상단은 핵심 쟁점인 '상여금 지급' 규모를 정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위탁사가 상여금 30%에 해당하는 1인당 60만 원을 '문화 활동비'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노조가 수용하면서 논란이 일던 상여금 지급안이 해결됐다.

지난달 25일과 29일 부당해고자 복직과 4대 보험 부담, 올해 임금 확정 등은 잠정 합의된 바 있다. 부당해고자 3명에 대한 복직과 직장폐쇄 기간 지급되지 않은 두 달 치 임금은 '생계 지원비' 명목으로 기본급에 준해 지급할 예정이다.

사측이 올해부터 4대 보험비를 부담하고, 노조 사무실을 기관 내에 설치하기로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노사 간 합의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만잡월드 운영사와 근로자 양측 모두 소통하고 상생협력으로 순천만 잡월드가 활성화 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직업·진로 체험시설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기간 분쟁으로 정상화되지 못했던 잡월드 운영이 조속히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전국학생야구대회 개막
순천 팔마야구장

순천시는 1일 순천팔마야구장 등(5개소)에서 2023 순천만국가정원배 전국학생야구대회가 막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순천시가 주최하고 순천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주관하는 전국단위 대회로 5일까지 초·중등부, 18~26일 고등·대학부 경기가 치러진다.

시는 전국 33개 학생야구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야구의 우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할 방침이다.

순천시는 겨울철 온화한 기온과 최적의 스포츠 인프라를 바탕으로 겨울 방학 기간에 야구대회를 유치한 만큼 1500명 이상의 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 등이 순천을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대회에서 야구 꿈나무들이 그동안 다져온 실력과 기량을 마음껏 펼치길 바란다"며 "순천의 볼거리, 먹거리를 잘 즐긴 후 4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되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에 다시 한번 순천을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청소년우주센터서 우주캠프
순천시 방과후아카데미

순천시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들과 함께 지난달 25~27일 고흥 국립청소년우주센터에서 진행하는 우주캠프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해 청소년의 역량을 개발하고 우주과학 현상에 대한 기본 원리와 다양한 실험, 체험을 통해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들은 우주인훈련장비체험, 천체투영관에서 본 하늘, 우주착륙선 제작, 대기비행의 안정성과 폼로켓, 균형잡기와 우주인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한편 순천시청소년문화의집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중1~2학년을 대상으로 자립역량을 개발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방과후 학습지원, 전문체험활동, 생활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정원박람회조직위, 4일 '오천그린광장' 공개

새로운 광장문화 번창 기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해 순천시가 조성한 '오천그린광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시민들이 모여 만남과 소통을 이어가며 새로운 '광장문화'를 꽃 피울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이사장 노관규)에 따르면 4일 박람회 '봄 UP 페스타'장소를 '오천그린광장'으로 정하고 2023정원박람회의 작은 예고편으로 공개한다.

'봄 UP 페스타'는 시·군 단체장과 초청 인사,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오천그린광장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홍수를 예방하는 기능에 머물던 저류지를 정원으로 바꿔놨다.

저류지에 사계절 잔디를 깔고 어싱길과 경 경관조명, 바닥분수 등을 연출했다. 오천그린광장은 1.2㎞ 달하는 마로니에 길까지 더해져 도심 정원의 대표 명소로도 각광 받을 전망이다.

노관규 이사장은 "오천그린광장은 삶 속의 정원을 대표하는 2023정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 중 하나이자 광장문화를 끌어낼 모델" 이라며 "순천은 대한민국 도시발전의 이정표이자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원박람회 봄 UP 페스타에는 카이, 비오, 소유, 김범수, 김희재, 제이위버, 나영 등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한다.

순천=배서준 기자